

# '작은 곤충이 주는 큰 행복'

### 농진청, SETEC서 애완곤충 경진대회 29일 국민참여형으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나흘 동안 서울무역 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2021 제5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를 연다.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는 국내 애완곤충산업 활성화와 외연 확대를 촉진하는 국민참여형 축제로 올해로 5회를 맞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작은 곤충이 주는 큰 행복'이라는 주제로 ▲주제관 전시 ▲8분야 16종목의 애완곤충 경진대회 ▲정서 곤충 활성화 국민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제관은 곤충 마을을 주제로 ▲작은 곤충이 주는 큰 행복, 애완곤충의

매력 ▲나를 위로해주는 곤충 치유 곤충 이야기 ▲한국의 문화역사 곤충 ▲애완곤충의 무한한 세상 신규 애완곤충 등 4가지 전시로 구성된다. 또한 왕귀뚜라미 등 정서 곤충 4종으로 '치유 곤충 존'을 운영해 치유 곤충 연구 사례와 관련 교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애완곤충으로 매력적인 딱정벌레과(Carabidae)를 전시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세계 대륙별 곤충과 기네스에 오른 곤충을 표본으로 볼 수 있으며, 국내 곤충 전문 연구기관

과 곤충 판매업체에서 준비한 전시관 견학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사 둘째 날에는 정서 곤충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서곤충산업 활성화 국민 포럼'이 열려 '치유농업 소재로써 정서 곤충 연구 현황' 등 5가지 주제로 민·관·학 전문가와 곤충애호가 함께 정서곤충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객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30일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된다.

서로의 애완곤충을 겨루는 경진대회도 열린다. ▲우량곤충 2종 ▲멋쟁이 곤충 6종 ▲귀요미 곤충 3종 ▲타산 곤충 1종 ▲곤충 과학 왕관찰 기록상 ▲신규 애완곤충 발굴 ▲곤충 퀴즈대회 ▲학술 곤충 활용 우수사례 등 8분야 16종목이다. 각 종목은 전문심사위원이 평가하며, 농식품부 장관상(1점), 서울특별시 상(4점), 농촌진흥청장상(4점), 국립농업과학원 장상(13점) 등 총

48점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애완곤충경진대회 누리집(www.대한민국애완곤충경진대회.com)에서 관람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누리집 사전등록자만 입장이 가능하며, 관람은 하루 3회로 나눠 동시 관람객이 500명 이하가 되게 제한한다. 사전등록을 못 했거나 행사장 방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곤충 전시물과 현장 모습을 비대면으로 볼 수 있게 대회 누리집에 영상도 게시한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남성희 과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최근 치유농업법 시행으로 관심이 높아진 정서 곤충을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는 자리"라며 "이 자리가 곤충산업 종사자와 곤충애호가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의 장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곤충 사육 농가와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관장 주도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안전사고 예방·대응력 강화

### 바이오진흥원, 기관장 주도 점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관장 주도의 안전점검을 26일 실시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안전점검에 앞서 단 자체 불안전 요소 발굴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주요 시설물 현장의 위

험요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시설개선 등 후속조치 이행 사항에 대해 꼼꼼히 점검했다.

김동수 원장은 "안전경영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안전계획의 수립에 따른 전사적인 이행을 강조하고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문 목련회, 재난이재민 긴급 구호키트 포장 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여직원 모임인 목련회(회장 김태희)는 지난 24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서에서 2021 '재난이재민 긴급구호키트' 포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재난이재민 긴급구호키트'는 갑작스러운 화재 및 수해 등으로 의식주가 곤란해져 위기상황에 직면한 재난이재민들에게 지급하는 긴급구호물품이다.

이날 전북은행 목련회 회원 및 자녀 30여명은 무더운 날씨 속에 구슬땀을 흘리며 재난이재민 긴급구호키트 330세트를 포장했다.

김태희 회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상황에 직면하는 도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회원 가족들과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소상공인 아이디어 실현 200만원 바우처 지원

### 경진원, '창의 육성 컨설팅' 참여자 30일까지 신청접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소상공인 창의 육성 컨설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소상공인 창의 육성 컨설팅(이하 창의 육성 컨설팅)' 사업은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해 창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소상공인의 안정적

인 영업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창의 육성 컨설팅은 컨설팅 비용으로 60만 원(국비 100%),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비용으로 최대 200만 원 이내(국비80%, 자부담20%)를 지원하며, 연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항목으로는 ▲제품까지 향상 ▲판로 창출 ▲스마트 전환 ▲경영기술 혁신 ▲법률지원 ▲점포개선 등이며, 전문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컨설팅과 함께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난관을 극복하는 컨설팅과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바우처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경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및 전북 소상공인 전문지원센터(15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 김수홍 의원, 중기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이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장기(45년 이상) 건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비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시키는 취지로 지난 2018년 도입돼 현재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 및 현관

제공, 언론·SNS를 통한 기업 홍보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가 제공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를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해당 업종은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배제했으나, 최근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면서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유호상 기자

##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원 이하 100만원... 소상공 지원 내달 17일

### 2차 추경 범정부 회의서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이 38만원 이하면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는다. 단, 시가 20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했거나 13억원 예금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버팀목플러스 지급 지원 대상부터 다음달 17일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장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2차 추경으로 확정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대상, 시기 등을 논의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맞벌이·1인 가구 지급 기준을 완화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홀벌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는다.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를 지급기준으로 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6월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2인 19만100원 ▲3인 24만 7000원 ▲4인 30만18300원 ▲5인 38만 2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원 ▲4인 34만2000원 등이다. 혼합가구는 ▲2인 19만4300원 ▲3인 25만2300원 ▲4인 32만1800원 등이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는 기존 가구원수에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소득하위 80%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지원금 지급시기는 코로나19가 8월 하순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등을 감안해 방역 당국과 조율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뉴시스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